

2026

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동차반 입문특강

오 은 지

답안지부터 공부하라!

동차 EXPRESS

강의계획서

"완벽주의를 버리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론."

담 당 오은지 노무사

- ▶ 제28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 ▶ 前) SK텔레콤 노동조합 전문위원
- ▶ 現) 월비스 한림법학원 인사노무관리/경영조직 전임

강의일정

- ▶ 실강 2026년 6월 2일 화요일
- ▶ 오후 13:00 ~ 17:30 (4시간 30분)

**특별
제공자료**

- 역대 기출리스트 자료(인사 / 경조)
- 공인노무사 커리어로드맵 자료(10인의 노무사 커리어)
- 공인노무사 합격수기 기반 AI챗봇 접속링크

문의/질문

카페 <https://cafe.daum.net/abcxx1234>

이메일 cpla_eejj@naver.com

다운로드 링크 <http://naver.me/xVBJcMP5>

기획의도

이 특강의 목적은 단순히 동차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험생에게 “동차 수험은 정규순환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 시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념을 구조화하고 답안으로 전환하는 공부법**을 체험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5,473명이 응시했고 418명이 합격해 합격률 7.63%를 기록했습니다. 원칙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지만, 실제 수험 현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안정적으로 점수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따라서 동차반 특강은 많이 아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확보하는 공부**를 제안해야 합니다.

문제의식

노무사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은 ‘누가 더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결국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내는가**에서 갈립니다. 시험은 냉정합니다. 더 많이 이해한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시험장에서 목차를 세우고, 필요한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하여, 점수로 연결한 사람**이 합격합니다.

보통 수험생은 다음 순서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수강한다 → 쟁점을 이해한다 →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다 → 반복하여 암기한다 → 답안을 작성한다 → 점수를 획득한다 → 합격한다

그러나 동차 수험에서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너무 늦습니다. 동차반 수험에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사실 다음 세 단계입니다.

답안을 작성한다 → 점수를 획득한다 → 합격한다

이 특강은 바로 이 공부 순서를 뒤집는 강의입니다. 즉, “다 이해한 뒤에 쓰는 공부”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쓰면서 이해를 보완하는 공부”를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핵심목표

이 특강은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는 강의가 아닙니다. 3가지를 남깁니다.

첫째, 시험의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동차 수험은 정석을 완벽히 재현하는 게임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합격확률을 최대화하는 게임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둘째, 개념을 외우는 방식 자체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개념은 통째로 암기하는 문장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목차와 문장으로 재조립되어야 하는 **재료**라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개념이 실제 답안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강을 듣고 나갔을 때 “아,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감각이 남아야 합니다.

| 강의 세부내용 | 시 간 | 파트 | 핵심 내용 |
|---------|----------------------|--------------------------|--|
| | 13:00~13:50 (50분) | 1부 시험 현실과 동차 합격전략 | 시험 구조, 25년 결과, 점수분포, 채점 시사점, 동차 공부 순서 |
| | 14:00~15:00 (60분) | 2-1부 인사관리 개념을 통한 구조이해 | 개념 분설, 키워드 해체, WHY 중심 이해, |
| | 15:10~16:10 (60분) | 2-2부 인사관리 개념을 통한 구조이해 | 정의문장 분석 |
| | 16:20~17:30 (70분) | 3부 개념에서 답안으로 | 개념 → 목차 → 문장 전환 시연 답안지 작성 원리, 동차반 학습법 제시 |

▣ 1부. 시험 현실과 동차 합격전략 (50분)

이 파트는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수험생의 사고를 전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먼저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구조와 합격 현실을 짚어줍니다.

2025년 제34회 2차시험은 응시인원 5,473명, 합격자 418명, 합격률 7.63%였습니다. 원칙상 절대평가 구조를 취하지만, 실제 수험 전략에서는 결국 안정적인 60점대 답안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 합격자 평균도 대체로 62점대에 형성되어 있어, “완벽한 80점 답안”이 아니라 **과락 없이 안정적으로 평균을 끌어올리는 답안 설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파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동차 수험은 ‘다 알고 쓰는 공부’가 아니라, ‘쓸 수 있게 만들고 들어가는 공부’다.

여기서 추천하는 전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 시험은 지식량 경쟁이 아니라 **점수화 경쟁**이다.
- 동차생은 정규순환 수험생의 속도와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 동차생의 공부는 **답안지 중심**이어야 한다.

즉, 1부는 수험생에게 충격을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너무 예쁘게 하려고 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겨야 합니다.

▣ 2부. 인사관리 개념을 통한 구조이해 (60분X2회차)

정의문장 제시 → 키워드 분해 → 각 키워드의 존재 이유 설명 → 키워드 간 연결 → 이 개념이 답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시

예를 들면, 단순히 “인사관리란...” 식으로 정의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문장 속에 있는 핵심어를 쪼개서

“왜 이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가”,

“이 단어가 빠지면 어떤 논점이 사라지는가”,

“이 단어가 시험장에서 어느 목차로 연결되는가”

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즉,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개념정의를 철저히 계획된 문장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목차와 쟁점과 답안 구조가 이미 들어 있다.

이렇게 가면 수험생은 개념을 외우는 태도 자체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개념정의를 “달달 외워야 하는 문장”으로 봤다면,
 이 특강 이후에는 “답안지를 구성하는 압축파일”로 보게 됩니다.

▣ 3부. 개념에서 답안으로 : 목차와 문장 전환 시연 (70분)

동차반 특강의 목적은 이해가 아니라 행동 전환입니다.

개념 → 목차 → 문장 → 답안 구조

로 연결해주는 시연이 들어가야 합니다.

- 하나의 개념정의를 다시 제시한다.
- 그 정의에서 시험에 쓰일 수 있는 목차 요소를 뽑아낸다.
- 그 목차를 실제 답안 첫 문장과 본문 문장으로 바꿔본다.
- “이 정도면 시험장에서 점수 나는 답안이 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개념을 아는 것과 답안을 쓰는 것은 다르지만,
 개념을 올바르게 해체할 수 있으면 답안은 훨씬 빨라진다.**

이 파트까지 들어가야 수험생이 특강을 듣고 바로 다음날 공부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별점

첫째, 단순히 “열심히 하라”는 동기부여 특강이 아닙니다.
 이 특강은 **공부법 전환 특강**입니다.

둘째, 단순히 시험정보를 정리해주는 특강이 아닙니다.
 이 특강은 **시험 구조를 보고 공부 순서를 재설계하게 만드는 특강**입니다.

셋째, 단순히 개념강의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특강이 아닙니다.
 이 특강은 **개념을 어떻게 답안으로 바꾸는지까지 보여주는 특강**입니다.

즉, 한 줄로 정리하면 이 특강은
“동차 수험생의 마인드를 바꾸고, 공부 순서를 뒤집는 3시간”
 입니다.

수강대상

이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올해 반드시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입니다.
 장기적인 기본기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강의는 올해 시험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답안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둘째, 공부시간은 부족한데 시험은 눈앞에 다가온 수험생입니다.
 전체를 다 보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셋째, 이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답안지가 써지지 않는 수험생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알 것 같지만, 막상 빈 답안지 앞에 앉으면 손이 멈추는 분들에게는 ‘답안지 중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정규순환의 정석적 방법을 따라가기엔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입니다.
 동차반은 완벽한 과정을 재현하는 수업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합격 전략을 설계하는 수업입니다.

기대효과

이 특강을 듣고 나면 수험생은 최소한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동차 시험의 공부 순서가 바뀝니다.

무엇을 다 이해한 뒤 쓰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개념을 외우는 방식이 바뀝니다.

개념정의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단위로 해체하고, 그것이 어떤 목차와 논점으로 연결되는지 보게 됩니다.

셋째, 답안 작성의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완벽한 답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재현 가능한 답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 특강의 효과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실질적입니다.

“막연히 알 것 같은 상태”를

“이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아는 상태”로 바꿔주는 것.